

예장통합 여성안수 묵살 계기

개신교 성차별 논란 가열

한국 개신교의 최대교단인 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쪽이 올해에도 여성안수 제도를 묵살한 데 대해 여성교역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기독교민회, 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학자협의회(여신협), 여성안수를 위한 예장여성회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16일 예장 통합 제73차 총회에서 1933년 총회에 상정된 이후 60여년 동안 여성교역자들의 숙원이었던 여성안수 제도가 또다시 부결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단체는 7일 오후 여성백인회관에서 ‘여성인권과 교회민주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편 여성안수 문제를 사회여론에 호소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신협의 윤문자(평생·평등 노동권에 비추어 본 여성안수), 선순화 목사(여성안수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독교민회의 박후임씨(교회개신과 여성) 등이 주제발표를 통

해 여성안수 문제의 사회적·신학적 재조명과 교회민주화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며, 예장여성회의 이계심씨가 여성안수 운동의 경과와 여성억압 사례 보고를 한다.

지난달 16일 오후 실시된 여성안수 문제에 관한 투표에서 표결에 참가한 총대들은 찬성551, 반대620, 기권4, 무효4로 현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일제히인 1933년 경안노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래 지난 60여년 동안 24차례나 총회에 현의되고 15차례는 표결로 부결됐던 해묵은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인권유린” 여성교역단체 일제히 반발 내일 토론회 공동개최등 여론에 호소

특히 이번 예장 통합쪽의 총회에서는 “이번 부결을 계기로 앞으로 3년 동안은 더이상 여성안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부대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여성교역자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이처럼 여성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회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으로, 교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현재 전체 50여개 교단 가운데 여성안수제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기독교장로회(기장) 등 7개에 불과하다.

55년 여성안수제를 가장 먼저 채택한 기감은 1백여명의 여목사와 전체 장로의 10% 수준인 2천~3천명의 여장로를 냈다.

57년 첫 여장로를 허용한 기장은 74년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 현의를 통과, 90여명의 여목사를 배출했다.

윤문자씨는 토론회에 제출한 주제발표문에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통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윤씨는 한국인의 4분의 1이 기

독교인이고, 그중 여성이 63%라는 통계에 비추어볼 때 한국여성 6명 또는 7명 가운데 한사람이 기독교인인데도 교역자 가운데 여목사가 2.3%, 여전도사 24.6%에 불과해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에서 여성이 교역자로 활동할

은 △청빙기회조차 아주 적고 △고학력 기혼여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임시적인 경우가 태반이어서 목사가 바뀔 때마다 해고되는 사례가 잦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예장(통합)의 경우 교역자주소록에서조차 여교역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윤씨는 7월13일 노동부가 올 하반기부터 여행원 분리채용을 금지한 지시를 내리는 등 “일반사회는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급속히 진전돼 가는” 상황에서 “가장 원시적인 성차별을 온존시키고 있는 현상이 바로 교회공동체”라고 공개했다.

윤씨는 교회의 여성차별은 “우리나라 전통의 성차별이 기독교의 성서와 가부장적 신학에서 신화화되어 교회에서 실천됨으로써 계급적인 성별 분업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6~18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예장 제76회 총회. 예장총회는 지난 33년 이후 해마다 제기되어온 여성안수 현의를 부결시키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여성안수문제를 거론하는 부대결의안도 통과시켰다.